

'24년 4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4	4.17	회의실	7/13	4	1	12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안나·김영신·송경용·심상돈·오광호·오동식·이숙희·조정완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윤근수(경영인프라본부장), 김귀빈(콘텐츠혁신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3	0	2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5.18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역사적 사실 기록되도록 관심 필요	R <6시 뉴스> 5.18 조사위 종합보고서 초안 공개하라(5.9), <뉴스데스크> 진조위 결과에 시민 분통(4.25) 등 방송 조치	'24.4.
"	교통 문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군 공항 이전 최적지 발표(4.24), 도시철도 지선 연결 재추진(4.20), G-패스는 언제쯤?(5.1), 무안공항 국제노선 늘어나지만(5.10), <뉴스투데이> 철도는 고흥市 필수조건(4.22), <시사 용광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첫 토론회 전환점 되나?(5.2) 등 방송 조치	"
"	개표방송 중 분장 시 후보자 인터뷰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음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4.29) 및 향후 제작 시 유의 권고 조치	"
"	의료공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불안감 해소되도록 계속 보도를 바람	<뉴스데스크> 주 1회 휴진 환자 불편 가중(4.29), <뉴스투데이> 시 보건소도 휴진 전남, 공보의 지속 감소 어찌나(4.25), 의대 5자 회동 '불투명'(5.10) 등 방송 조치	"
"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건설 업계와 지역 건설경기에 관해 관심 필요	<5시 뉴스> 한국건설,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5.7), <뉴스데스크> 보증금이라도 돌려주세요(4.23). <남도탐구생활> 광주시 아파트 비상 '마이너스피, 미분양' 속출(5.8) 등 방송 조치	"
"	불법 벌목에 대해 구청의 대응을 주시하고 관심 계속 가져주길 바람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4.29), <뉴스데스크> 수천 평 무단 벌목(4.5),	"

		광주 서구 임야 불법 벌목 업체 고발(4.8) 등 방송 조치	
"	개표방송 시 투표를 통해 전망 예측 없어 아쉬움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4.29) 및 자체 뉴스 제작 확대 지속 노력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스포츠, 맛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길 바람	<남도탐구생활> 익스트림 스포츠의 세계(5.9), 부모님께 선물하는 효도 먹방(5.9), 월간 본술랭 가이드(5.8)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타랑께' 자전거 사용 범위가 넓어지도록 지원과 관심 필요	<광주MBC 보다> 타랑께 타고 봄나들이 떠나보랑께(5.13) 등 방송 조치	"
"	<본방을 보자> 친환경 실천 등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어디에나 페스티로폼 섬마을은 작은 쓰레기장(4.22), 지리산 케이블카 5번째 도전(4.22), 거문도 해양쓰레기 몸살(4.22), '지구의 날' 광주시, 차 없는 거리 운영(4.20) 등 방송 조치	"
기타	유튜브 뉴스 기사 업로드 횟수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4.29) 및 자체 뉴스 제작 확대 지속 노력 조치	"
" (방송 통심의 위원회)	사전 선거 투표 기간 날짜 잘못 고지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4.29) 및 자체 뉴스 제작 확대 지속 노력 조치	"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5.18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역사적 사실 기록되도록 관심 필요	5.18 특집 보도와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으며,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교통 문제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	군 공항 이전,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개표방송 중 분장 시 후보자 인터뷰 등 어수선한 모습이었음	유튜브 방송 특성상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향후 제작 시에는 여러모로 검토하겠음	○		
"	의료공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불안감 해소되도록 계속 보도를	의료공백으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방안을 찾아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바람	보고하겠음			
"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건설 업계와 지역 건설경기에 관해 관심 필요	건설 업계나 지역민의 피해를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가지겠음	○		
"	불법 벌목에 대해 구청의 대응을 주시하고 관심 계속 가져주길 바람	서구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린 내용을 추가 보도했음	○		
"	개표방송 시 투표를 통해 전망 예측 없어 아쉬움	앞으로 전문 패널을 활용해 개표 방송을 할 때 전망 예측을 포함하도록 조치하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스포츠, 맛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길 바람	프로그램이 개편되나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다루도록 하겠음	○		
"	<본방을 보자> ‘타랑께’ 자전거 사용범위가 넓어지도록 지원과 관심 필요	환경 등 자전거의 효용성을 고려해 확대 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겠음	○		
"	<본방을 보자> 친환경 실천 등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바람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해서 방송하겠음	○		
기타	유튜브 뉴스 기사 업로드 횟수 부족 아쉬움	자체 뉴스 제작을 확대하고 유튜브 서비스하도록 노력하겠음	○		
" (방송 통심의 위원회)	사전 선거 투표 기간 날짜 잘못 고지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용 기사를 작성하면서 시제 표현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했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4월)

일시	2024. 4. 17. 수. 오후 5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곽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오동식, 이숙희, 조경완(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근수 경영인프라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위원회 임기가 다음 달 한 달 남았는데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총선 등 한 달 사이 많은 일이 있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는 데에 MBC가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 쇼핑몰 등 진행이 되고 있다. 경제만 안정되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사장님께서도 연임 이후 취임식을 따로 하지 않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인사 말씀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임기를 3월 19일부터 다시 시작했다. 총선 개표 방송 광주문화방송이 20%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광주문화방송을 신뢰해준 덕분이다. 다시 임기를 시작하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월이 마지막 임기 회의인데 시청자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달라.
- 이승철 본부장 : -라디오 <건강플러스> 신규 제작했다. 지역 매거진 <남도탐구생활>, <아시안 탑 밴드 2>,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이 라파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됐다. 영산강 그란폰도 in 나주 행사가 5월 11일 열리며, 라파 지원작에 대해 지역MBC 6개 사 공동제작 스태프 구성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새 프로그램인 <남도탐구생활>은 4월 29일 첫 방송 예정이며, <아시안 탑 밴드 2> 제작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가락 우리 문화>는 5월 4일 광주과학관에서 2회 녹화를 진행한다. 독서 열차 참가 신청을 5월부터 받으며 행사는 7월 11일~7월 13일에 열린다.
- 이계상 본부장 : -22대 총선 보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MBC 개표 방송은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조국혁신당 지지세 주목 등 선거 관련 보도를 지속했고, 광주·전남 국회의원선거 개표 방송은 20%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분당 시청률이 27%를 찍을 정도로 시청자의 뜨거운 관심이 있었다. 김유성·백금렬 씨 등 출연해 전라도 말로 분석하는 유튜브 개표 방송을 했고, <시사 용광로>를 통해 4.10 총선에 나타난 호남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전력 배전 노동자 안전사고 기획 보도를 4차례 했는데, 신안 배전 노동자 감전 사고로 고통 지속, 한전 과실 입증 어렵고 정부 정책은 미흡하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5.18 영상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을 추진한다. 5.18기록관과 함께 광주MBC 5.18 영상 디지털화를 하는 것이다. 방송용 테이프 보관 중인 영상 자료 650시간 분량을 아카이빙 하여 5.18 연구자 등이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 초청 토론회를 준비한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포부와 계획을 듣는 시간 마련하겠다. 시민이 묻고 당선인이 차례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 가량 방송할 것이다. 광주MBC 뉴스 채널은 구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1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 강필오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기아타이거즈 개막전을 충요약했다. 2024 프로야구 6개월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2만 5천 석이 매진되었고, 팬 사인회, 타이거즈 굿즈샵, 포토존, 네 컷 사진 부스, 챔필 10주년 기념품, 개장 10주년 생일파티, 챔필 신상 먹거리 순서로 방송되었다. 이범호 감독과 함께 첫 경기 첫 승리를 축하한다. 가을야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는 타이거즈가 되길 응원해 본다. 3월 28일에는 한국 양궁의 살아있는 신화 올림픽 8연패, 세계랭킹 1위에 빛나는 기보배 선수의 근황을 알려줬다. 선수 은퇴 후 인생 2막을 펼치는 한국 양궁의 전설 기보배 교수의 일상을 방송해 좋았다. “남들과 똑같이 하는 노력은 평범한 노력이다.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 4월 11일 타랑께 타고 봄나들이 떠나보랑께에서는 4월부터 이용 구역이 확대된 광주 공영 자전거 타랑께에 대한 안내와 타랑께 이용 방법을 알려줬다. 각종 봄꽃이 만개한 요즘 타랑께와 함께 특별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어서 좋았다. 4월 11일 월간본술랭 가이드에서는 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별한 짬 맛집을 소개해 주셔서 특색있고 좋았다. 푸짐한 맛 좋은 재료를 자랑하는 우렁쌈밥과 묵은지 고등어 쌈밥을 소개해줬다. 스포츠, 맛 등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계속 전해주길 바란다.

○ 고아라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 관광용 닭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든 농부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식용으로만 사용되는 닭의 이미지가 조금 폭넓어지고 다양한 나라의 60여 종 닭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이색적인 주제였다. 사진관, 카페 등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복고풍 감성과 문화를 오히려 트렌디하다고 느끼는 점이 흥미로웠다. 푸드 업사이클링으로 버려지는 국산 농산물을 제2의 제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소비의 문을 여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동구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는 지역의 숨어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자원을 재활용하고 환경문제 또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이러한 센터의 소개 및 광주의 새로운 정보들을 방송으로 접할 수 있어 시청자로서 매우 유익했다. 자원의 재사용 등 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문화콘서트 난장> 3월 28일, 4월 4일에서는 개성 있는 인디밴드들의 공연이 흥미로웠다. 훌륭한 음악 사운드 밸런스가 좋았다. 대부분 창작곡이 많다 보니 처음 접하게 되는 곡들이 많아 가사를 자막으로 띄워주면 공연을 감상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첫 출연자만 마이크 커버를 흰색으로 씌웠는데 다른 출연자들과 같이 검정으로 통일해주셨으면 좋을 듯싶다. 최근 회사들은 실내 공연과 야외 공연의 여러 회차를 편집한 듯했다.

○ 광선희 부위원장 : -<시사 용광로> 5.18 진상 규명조사 마무리 미해결 과제는? 편을 시청했다. 5.18진상규명 조사위가 남은 의혹 해결을 위한 조사보다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안타깝다. 장갑차 사망사건, 무기고 피습사건, 166명 사망자 원인 등 판결문보다 후퇴한 조사위 보고서는, 4년간 100여 명 조사위들이 수백억원의 경비를 들였지만, 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미해결 과제, 향후 대책 등 수정·보완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별법에도 제시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 못 한 왜곡 부실과 빈곤한 성과라는 질타를 겹겹히 받아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될 수 있도록 보도에 신경써주길 바란다.

-<본방을 보자> 뉴스본방에서 전한 농성동에 5성급 특급호텔인 하얏트 호텔이 40층, 높이 140미터 건물에 200여 개 객실 규모로 들어선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상습 정체 구간인데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염려된다. 광주 도심은 지하철 등 공사로 인해 노면 상태가 불량하여 도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로보수는 1킬로미터당 1억 원이 소요되며, 노후 보수에 매년 500억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외곽 도로보수가 우선인 상황이라고 한다. 건물시공보다는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언론에서는 지역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5일 사전투표에 대한 리포터의 자세한 안내가 좋았다. 노점상의 일상을 보며 서민의 애환 느껴졌다. 무거운 박스 진열과 비 오는 날 장사하는 모습, 옆 찜빵 가게주인은 하루 장사를 위해 5시 기상하여 준비하는 모습을 엿보게 되었다. 재료 값이 올라도 서민을 상대하기에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는 애로에 마음이 착잡하였다. 한가지 문제점은 구매 물건들을 전부 검은 봉투에 담아 주는 모습이였다. 장바구니 사

용 등 친환경 실천을 위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청해본다.

-공공 심야약국 필요성과 편의점 상비약 취급 항목 늘려야 하며 지자체가 협치하여 지점 확대가 필요할 것 같다. 광주시 인공지능 사관학교가 첫 회 5.8%였는데 올해는 2.2% 낮아 지는 원인과 다른 지역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관심과 유인책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봄맞이 가로수 치기 때 닭발, 주먹손 모양으로 머리 부분이나 가지치기 두절 방법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에 전문가의 조언 필요할 것 같다.

- 김안나 위원 : -4월 16일 <본방을 보자> 방송에서 세월호가 잊히지 않게 하려고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심도 있게 다뤄줘서 감사했다. 4월 9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잘못된 가지치기 장면을 지적해 줌으로써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보도해 주셔서 좋았다. 여기 오는 길에 남구에서 가지치기 하는 걸 자세히 봤는데 너무 아름답게 잘하고 있었다. 광주MBC 2024 개표 방송 중 후보자 인터뷰 시 분장 중에 인터뷰하다 보니 주변이 어수선하고 분장하는 모습들을 내보내는 것도 좋아 보이지 않았을뿐 더러 후보들 답변들이 집중되지 않아 보기 좋지 않았다.
- 김영신 : -6개월 전에 광주MBC 뉴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었다며 축하한 적이 있는데 그새 11.5만 명을 초과했다. 유튜브 채널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다. 유튜브 채널의 광주MBC 뉴스에는 <시사 용광로>, <광주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시사 인터뷰 오늘> 등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광주MBC 단독기사만 모아놓은 카테고리를 애청하고 있다. 전국단위 뉴스에서는 놓치기 쉬운 지역 현안을 단독으로 심층 보도해 주어 지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광주의 한 건설업체가 대낮에 산에 심어진 나무를 모두 베어버린 일, 신안 배전 노동자 감전 사고 관련 한국전력이 오조작을 인정한 사건 등이 단독으로 보도되었다. 모두 최초 뉴스 보도 이후에 후속기사가 궁금한 사건이었는데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 좋았다. 다만, 단독기사가 한 달에 1건에서 2건 정도만 업로드되다 보니 횡수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 송경용 위원 : -<본방을 보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에서 광주의 공공 심야약국 부족에 대해 소개했다. 광주의 공공 심야약국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장기화하여 가는데 깊은 밤에 갑자기 아프면 이는 불안감이 든다는 것이다. 공공 심야약국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 편의점의 상비 의약품을 더 늘리고 제품도 다양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하다.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주고, 광주의 365일 새벽 1시까지 문 여는 공공 심야약국의 위치를 알려주어 좋았다. 공공 심야약국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청취자들은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또한 뉴스 시작 전 총선 투표에 대해 길거리로 가서 인터뷰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투표 홍보를 할 수 있었던 것에 신선했고 흥미로웠다. 사전투표의 장점도 이야기해주었고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와 투표에 대해 들어보고 시민들의 인식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투표 방법, 투표 시간 등 정보를 다시 알려주어 좋았다. 2024 총선이 민주당의 압승과 국민의힘 참패로 끝이 났다. 최종 개표 결과 지역구와 비례 포함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국민의힘, 미래연합 108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 조국혁신당 12석, 진보당 1석으로 집계 되었다. 민주당이 과반 초과하며 압승하였다. 22대 총선 투표율이 67%로 32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선의 결과를 아직 모르는 청취자들은 <본방을 보자>를 통해 깔끔하게 정보를 알 수 있었다.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외국인들 또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해주어 좋았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투표를 통해 전망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있었다. 문화가 소식으로 광주문화유산 야행 일정을 소개했다. 4월 26일(금)부터 27일(토)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이 되며 장소는 5.18민주광장, 광주읍성유허 일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한다. 광주극장 영화 상영으로 상영작은 <세월: 라이프 고즈 온>, <바람의 세월>, <돌들이 말할 때까지>, <정순> 등 발견 다양한 문화 소식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다양하게

즐기고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선정되어 좋았다.

○ 심상돈 위원 : -<본방을 보자> '타랑께 타고 봄나들이 떠나보랑께'를 시청했다. 타랑께는 이용 구역을 확장하여 상무지구에서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1시간 무료다. 타랑께 자전거를 타고 상무지구에서 출발하여 아시아문화전당까지 광주 시내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광주천 주변의 꽃길과 5.18공원과 함께 광주 시내 여러 공원 그리고 공원 내부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시설과 환경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좋은 구상이다. 안전한 자전거길의 소개 또한 의미 있었다. 잘 모르기도 하고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광주천변 꽃길을 자전거 '타랑께'와 함께 광주를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였다.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청 담당자만으로는 관리가 부족하다. 사용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오광호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 파충류 키우기, 프라모델 모으기, 목공 디자인 등 이색적인 활동들을 취미를 넘어 직업으로까지 확장한 분들의 모습이 소개되었다. 취미를 직업으로 갖기 위해 쉽지 않은 선택과 과정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몰입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결과물까지 얻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식당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식모회'라는 모임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냉장고 물품을 채우는 활동 영상이 소개되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음식을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필요로 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더 효과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행복공유냉장고를 운영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을 생각하여 레토르트 식품, 간편 조리식 등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긴 제품들을 선정하여 후원하는 모습에 감명 깊었고, 더 많은 지역에 행복공유냉장고가 생기고 더 많은 후원을 통해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로 살리기 위해 꺼내든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 교수 사직 등 집단행동과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불안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은 환자와 환자들의 가족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증환자가 아니더라도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소외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문제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 용광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자들이 현 상황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광주시의사회장님께서 물론 답답한 마음이 컸겠지만 사회자의 진행을 무시하고 큰 소리로 울분을 토하시는 모습에 조금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했다. 각 계의 입장에서 현상황을 바라보는 모습과 진행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자리에서 일방적인 주장만을 늘어놓는 모습에 효과적인 토론을 위해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주장만 할 게 아니라, 현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순히 2,000명 증원이라는 한가지의 해결책보다 어떤 방식으로 증원을 할 것인지, 지역의료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돌려막기식의 의료공백 메꾸기가 아닌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 국민의 불안감과 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되도록 계속 보도를 바란다.

○ 오동식 위원 : -3월 26일 <뉴스데스크> 미분양 느는데 착공도 폭증 제하의 보도는 집값 하락과 미분양 물량 증가 등 주택시장 전반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도 44.3% 급증했다는 내용이다. 뉴스 이후 3월 28일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했다. 그 내용은 부실 우려 PF 사업장 토지 매입에 3조 원을 투입해 유동성 공급, CR리츠를 통해 '악성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입주 후 미분양 물건들을 매입하여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건설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정부가 적극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우리 지역 건설경기의 '구원 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뉴스투데이> 진도 홍주의 변화...세계화 전략 시급 보도는 진도군이 무형문화재인 '홍주산업' 지원에 나섰지만, 세계화 전략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다. 지역 특산

물로 유명한 안동소주의 경우 경상북도가 지난해 특별전담 부서를 만들어 미국과 중국 등으로 판로를 지원했고, 수출 규모가 전년보다 두 배로 늘기도 했다. 또 국세청이 지난해 K술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통주의 수출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진도 홍주 역시 전남도와 국세청의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전남의 특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차원에서 기획 취재하면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다.

- 이숙희 위원 : -수천 평 당을 불법으로 벌목하고 구청은 나 몰라라 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 수천 평 불법 벌목으로 민둥산을 만들고 5일 후에 원상복구 명령이라니 합리적 의혹들이 생겨난다. 개발제한구역은 공사허가가 불가능하므로 여러 상황을 감수하고 실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의혹이 커진다. 사전에 철저한 결과를 감수하고 시작한 불법행위, 집단 민원과 언론 그리고 민형사 그 이상의 것도 감수한 것인지, 그렇다면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을까 의문이다. 서구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 조경완 위원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으로 광주MBC 뉴스데스크 3월 20일과 광주MBC 뉴스투데이 3월 21일 내일부터 후보자 등록 제하의 보도 등에서 4월 5일~6일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기간을 4월 4일~4월 5일로 다르게 보도한 것은 심의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유의해 줄 것을 계도한다는 의견이 있다. 단순한 실수이겠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 위원님들, 너무 고마울 정도로 수고가 많으셨다. 올해가 광주MBC 60주년이다. 시청자위원회가 다음 달 이후 새롭게 구성이 되겠지만 좋은 아이디어,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 등 다양하게 전해주시길 바란다. 이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